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

김건수 교장 선생님

최근 가수 오디션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위대한 탄생' 등에서 최종 우승자가 된 허각과 백청강은 많은 젊은이들의 부러움 속에 가수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허각은 1984년 인천 남구에서 태어나 부모가 이혼하고 쌍둥이 형과 살며 어려운 형편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행사장 가수, 환풍기 수리공 일을 하다 134만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수가 되었으며, 백청강은 1989년 중국에서 조선족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외아들로 9살 때 어머니는 한국으로, 아버지는 러시아로 돈벌이 떠나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생활하면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두 젊은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가정 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3학년 이승열 군도 마찬가지로, 어려서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할머니께 의탁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하였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한 결과, 수시모집에서 중앙대학교 수학과에 당당히 최종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마련이 또 문제가 되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할머님께 폐가 될까, 수능을 볼 필요도 없는 합격자였지만 수학, 과학 1등급자에게 주어지는 국가이공계장학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이 군은 수능 전날까지 도서관에 남아 수능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목표했던 성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요즘 생활수준이 이삼십 년 전과 비교하여 무척 좋아졌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점점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비싼 대학등록금을 포함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또 부모님의 노고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인천에서 '학교생활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716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12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앞날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벗은 내 자신이며,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벗도 내 자신이고, 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도 내 자신 속에 있으며, 나를 해치는 가장 무서운 칼날도 내 자신 속에 있다고 합니다. 나를 통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도 허각, 백청강, 이승열 군 등과 같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대한 꿈을 세우고 용기 있게 도전합시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